

# 9월 늦더위에 '추레불사추'...가을 언제쯤

절기상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이지만 광주·전남에서 때늦은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아침, 저녁 쌀쌀해졌지만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면서 지역민들은 '한 여름을 방불케하는 폭염'에 절절매고 있다. 뜨거운 태양빛이 연일 내리 쬐면서 체감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주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고 7일 예보했다.

지난 4일부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된 폭염주의보가 7일 해제됐지만, 늦은 무더위는

### 광주·전남, 한낮 무더위 기승...내주까지 30도 넘어 기상청 "뜨거운 동풍에 남쪽 습한 기류 유입된 영향"을 여름 기온 높고 강수량 많아...장맛비 역대 최고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이다.

동풍(東風)이 가을 늦더위의 원인으로 꼽힌다. 기상청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상에서 광주·전남으로 불어오는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뜨거워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동풍이 매우 더운데다 습기를 머금고 있어 광주·전남의 가을을 달구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남쪽에서 열대저압부, 북태평양 고기압 등 습한 기류가 한반도에 유입돼 습도가 높아지는 것도 가을 무더위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공기 중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8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8~30도로 예보

됐다. 9일 아침최저기온은 16~22도, 낮최고기온은 28~32도에 분포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기예보 상 광주·전남은 오는 17일까지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은 30도 내외의 더운 날이 계속돼 평년기온(최저 17.8~21.2도·최고 26.8~29.2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는 차갑고 건조한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 동안 맑은 날이 계속돼 낮 동안 태양빛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돼 기온이 상승하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10도 내외의 일교차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동풍이 유입돼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

겠다"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여름 광주·전남은 많은 비가 내리 기상 관측 이래 강수량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6월 25일 시작돼 7월 26일에 끝난 장마기간에 광주 1102.5mm, 목포 783.4mm, 장흥 772.5mm 등의 비가 내려 광주·전남 역대 최고치 장마철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존 장마철 최소 강수량기록은 1985년 751.5mm였다.

또 2023년 여름철(6~8월) 광주·전남지역 평균 기온은 25도로 평년 24.2도 대비 0.8도 높게 측정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대 비전 'LIGHT 2028' 선포 광주대학교의 비전선포식 'LIGHT 2028'이 7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학교 호심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김동진 광주대 총장은 이날 교육혁신, 학생지원, 건강경영, 지역상생, 미래기술 육성 등 5대 전략과 15개 전략, 4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미디어아트 댄스팀들이 학교의 비전을 춤과 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검찰 본연의 역할 집중...국민 신뢰 쌓겠다”

### 박종근 광주지검장 취임

박종근(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신임 광주지검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영광 출신인 박 지검장은 이날 오후 광주검찰청사 9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기본에 충실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기분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 사건 떠남기, 책임 소재 불분명’ 같은 비판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형사사법 절차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넘어 재판·형 집행 등 일련의 절차에서 국민이 수감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검찰권 행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변화된 절차와



각종 제도의 시행 과정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 판단하고, 법률을 적용해 사건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지만 범죄자가 범행을 빠져나가거나 억울한 당사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면서 “검찰 업무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일인 만큼, 서로 배려해야 한다”며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박 지검장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광주·수원지검 검사, 울산지검 특수부장검사, 서울 북부지검·대구고검 차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9월 모평 1등급 컷 국어·수학 88점”

### EBS 분석...광주진학부장협 “킬러 문항 없었지만 변별력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초고난도 문항은 배제됐으나 변별력 있는 시험으로 평가됐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광주진협)는 9월 수능모의평가 문항 분석 및 수능 대비 방안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동아여고 여은화 교사는 국어영역에 대해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어렵고 전년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 다양한 난이도를 가진 문항의 적절한 구성과 매력적인 선택지 배치로 상위권 변별력은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덕고 박영광 교사는 “수학 영역은 전체적으로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쉽게 출제됐다. 최상위권을 선별하는 변별력은 6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떨어졌

지만, 중상위권 변별력은 더 컸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영어 영역에 대해 광주대동고 오창욱 교사는 “어려운 어휘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으나, 문장의 길이가 긴 지문들을 활용해 독해 난이도를 조절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모평에서 국어 1등급 컷은 화법과 작문이 90점, 언어와 매체가 88점으로 추정됐다.

수학 1등급 컷은 확률과 통계 92점, 미적분 88점, 기하 90점으로 예상됐다.

7월 오전 0시 기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EBS' 홈페이지에 공개한 9월 모의고사 예상 등급컷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2점으로 지난해 수능(134점)과 6월 모의평가(136점)보다

각각 8점, 6점 올랐다. 이는 수험생 입력한 가점점건수 12만여건을 분석한 추정치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3점으로 지난해 수능(145점)과 6월 모의평가(151점)보다 각각 2점, 8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이 상승한다.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국어 142점, 수학 143점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국어는 어렵고 수학은 쉬워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진협은 “최근 수능(모의평가 포함) 기출문제와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마무리 학습을 해야 한다. 특히 올 수능은 EBS 연계 교재 학습이 중요해진 만큼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광주·전남 건물 화재에 취약

### 129동 화재안전성능 보강 안돼...스프링클러 등 미설치

광주·전남지역 건물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지역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은 146동에 달한다.

경기(572동)와 서울(273동)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3번째로 많다. 전남은 111동으로 8번째를 기록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중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다.

분석결과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상건축물 중 보강이 완료된 비율은 전국에서 제주(37.5%)가 가장 적었고 광주(47.9%)와 전남

(52.2%) 순으로 낮았다.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 보강완료율 64.4%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는 보강대상 동수 146동 중 최근 3년간 전체 70동을 보강하는 데 그쳤고 전남은 111동 중 53동이 미보강이었다.

보강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축주들의 운영여건 악화와 공사비용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은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공사비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지만 건축주들이 자부담을 내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통 라온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